

영웅



2017. 09
Vol.23

英雄 The Hero

이달의 영웅

푸른눈을 가진 동아시아의 제왕
맥아더 장군

이상호 박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기획특집

인천상륙작전과 맥아더 장군

이인규 합동군사대학교 해군대학 교수

집중연구

맥아더의 전략 vs. 김일성의 전략

: 게임이론을 통해 본 인천상륙작전

김성현 박사

현충시설

- 인천상륙작전기념관
- 맥아더기념관 in Norfolk, VA

영웅칼럼

‘인천상륙작전’ 판도를 가른 X-레이 작전

안미영 대한민국 잠수함 연맹 워싱턴지회 회장

특별기고

맥마흔 불이 본 한국전쟁

정기중 전 주 카타르 대사

역사 발견

**애국가 탄생 120년,
〈무궁화가〉로 부터**

김연갑 애국가 연구가

영웅 논란

조선시대 역사의식의 변화

유영렬 전 군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세종인문학

**인쇄술과 출판문화를 꽃피게 한
세종의 인문 정책**

김슬옹 사무총장

세종대왕나신궁성역학국민위원회

이상만 박사의 독립정신(10)

청·일 전쟁의 원인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10)

애국가통운동과 신민회 활동

만화-북한 더 알기 8

북한의 불법과 반합법

한국문화재단
Koreaurea
도서관 판공제아우라

정가 15,000원





추모식사를 하고 있는 김동진 회장

헐버트 박사 68주기 추모식

(사)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홍보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유일무이하게 '건국 공로훈장(독립장)'과 '금관문화훈장' 두 훈장을 수훈한 헐버트 박사 68주기 추모식이 지난 8월 11일(금요일) 미포구 양화진외국인선교사보원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추모식에는 휴가철일 뿐만 아니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본 침략주의에 맞서 싸우신 조영진, 임우철 생존 애국

지사님 등 400여 명의 많은 추모객이 참석 하였습니다.

(사)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김동진 회장은 추모식사를 하였고, 이경근 서울보훈청장(윤종오 서울북부보훈지청장 대독), 마크 내퍼 Marc Knapper 주한미국대리대사, 김종욱 서울시 부시장, 박유철 광복회장(정재진 광복회 서울시지부장)은 추모사를,

노웅래 국회의원, 박홍섭 마포구청장이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헐버트 박사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 나님께 감사한다는 감리고 오세영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한 이날 추모식에서 김동진 회장은 추모식사를 통해 1949년 서거 시 '왜 헐버트 박사의 사회장 장례가 5일장이 아닌 7일장이었는지'에 대해, '처음 5일장을 결정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이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 7일장으로 하자고 제안하여 연장하였다고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김 회장은 이어서 헐버트 박사께서 생전에 중요시 한 애국심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김 회장은 헐버트 박사는 아버지로부터 애국심에 대해 특별한 영향을 받았으며 항상 단선적 애국심이 아닌 정의와 인간에

에 기본한 '올바른 애국심 right patriotism'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헐버트 박사님의 '올바른 애국심'을 본받아 자신의 주장이 진정한 애국인지 되돌아보자고 했습니다.

추모사, 인사말을 하신 분들은 하나 같이 을사늑약, 헤이그만국평화회의의 밀사파견을 전후한 박사님의 독립운동은 일제 강점기 한국 독립운동의 기폭제였다고 입을 모았으며, 박사님의 교육 정신이 이 땅의 선각자 배울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퍼 미국대리대사는 헐버트 박사 추모식 참석은 자신에게 참으로 큰 기쁨을 주는 일이며, 헐버트 박사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추모식 참석자들과 2층에 위치한 경향학대의 모습





참석자들의 헌화 모습.
(좌-이종찬 님
우- 조혜자 님)

한미관계의 상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일본의 역사 양심 코마츠 아키오 인간자연과학연구소 이사장의 특별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코마츠 이사장은 '전쟁 후 책임'을 다하는 일본인으로서 일본을 대신하여 한국 국민에게 사죄한다고 말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인보다 한국을 사랑한 한국의 영원한 친구인 헬버트 박사의 평화 정신을 본받기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중한 역사발굴이 있었습니다. 헬버트 박사께서 1904년 미국 세인트루이스 St. Louis 세계박람회에 출품

이날 소개된 거북선 모형과 주요 인사들(왼쪽부터 김동진 회장, 디나 제 Dana Jee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관장, 이석하 서울MCA 회장, 해양유물수집가 전우홍 선생, 마크 내버 Marc Knapper 주한미국 대리대사, 이종찬 전 국정원장).

하러 1903년에 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거북선 모형은 114년만에 공개하였습니다. 본 거북선 모형을 미국에서 구입하여 한국으로 되돌아오게 한 해양유물수집가 전우홍 선생은 이 거북선 모형은 역사상 최초의 거북선 모형으로서 조선 말기 조선 수군이 가지고 있던 거북선과 가장 비슷한 모형이라는 데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형은 우리나라 거북선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거북선 모형을 남긴 헬버트 박사에게 진정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학생역사합창단이 헬버트 박사께서 역사상 최초로 채보한 민족의 혼 아리랑과 박사님이 소원하셨던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합창하였습니다.



마크 내버 주한미국대리대사와 김동진 회장

이번 행사에는 멀리에서 참석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미국 LA, 강원도, 대전, 전주 등 지방에서 일부러 올라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 관련자료 '헬버트(Homer B. Hubert)의 거북선 사랑'은 다음호에 실릴 예정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는 학생역사합창단



추모식 인사말



코마츠 아키오
일본재단법인 인건자연과학연구소 이사장
코마츠전지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인류 역사 상 공국의 '전쟁 전 책임'을 묻는다!

호머 할버트 박사 68주기 추모식에 앞서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4년 3월, 안중근 의사 순국 104주년 기념식에서 “안중근 의사는 민족의 영웅에 그치지 않고, 인류의 영웅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참석자의 열렬한 찬동을 얻었습니다. 그 안중근 의사가 “한국인이란 말 하루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미국인 할버트 박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할버트 박사님이 한국에서 활동하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엽은 인류 역사적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일본은 국책을 오만하여

중앙집권국가를 탄생시키고, 패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후 청일전쟁을 거쳐 대만을 합병하고 중국을 침공했습니다. 러일전쟁 후 1905년 을사늑약(제2차 한일협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1910년에 한국을 병탄하였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할버트 박사님은 세계일강에 한국의 자주독립을 주장하기 위해 1907년 제2회 헤이그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할 것을 발안하셨습니다. 그 헤이그 특사 중 한 분이 이준 열사입니다. 저는 2012년 헤이그 이준열사기념관을 방문하여, 안중근 의사의 유묵 ‘독립’의 복제품을 기증 전시하였습니다. 제2회 헤이그만국 평화회의 참석자 중에 오스트리아의 베르타 폰 주트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주트너 여사는 1889년 베스트셀러 소설 ‘무기를 내려 놓으라!’를 발표하여, 전쟁을 저지할 것을 전 세계에 호소하며 국제적으로 평화 활동을 전개하고 1905년 여성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헤이그에 건설된 ‘평화궁’의 100주년 기념 사업 중 하나인 세계의 평화 자선이 20명전이 이 2013년 열렸고, 저도 그 중 한 명에 선정되어 패널 전시되었습니다. 개회식에 맞춰 주트너 흉상의 제막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본인은 주트너 여사의 인품과 심원한 신념이 느껴지는 흉상에 매료되어, 2구의 주트너 상을 제

작하게 되었습니다. 주트너 상이 특별한 평화 사절로서 세계 각지에 건립되어 그 뜻이 현대에 되살아나 확실한 평화로의 흐름이 시작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독립운동에 매진하신 할버트 박사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사랑한 한국의 영원한 친구”라고 불리며,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역할도 수행하셨습니다. 19세기 말에 그리스 태생의 라프카디오 현(일본이름 고이즈미 야쿠모)은 일본 시마네현 마츠에시에서 교편을 잡고, 미국과 유럽에 본격적으로 일본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현재 그의 외국 문화(다른 문화)에 마음을 여는 ‘오픈 마인드’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청일 전쟁 후에 일본의 풍조에 대해 “일본의 앞으로의 위기는, 아마도 이 터무니없는 큰 자부심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마우에서) 1896년)라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의 지적대로 일본은 길을 잘못 들어섰고, 여러분들의 나라에 큰 재난을 안겨드렸습니다. ‘전쟁 후 책임’을 다하는 입장의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현재 세계는 제1차 세계대전 전의 상황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희 인간자연과학연구소는 1997년부터 세계의 전쟁·평화 기념관을 방문하여 학습·현화·기부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분쟁·전쟁에 이르는 배경과 경위, 실태를 연구하여, ‘전쟁 전 책임’



코마츠 아키오 회장의 추모사를 대독하는
윤희준 코마츠 코리아 한국 대표.

‘전쟁 중 책임’ ‘전쟁 후 책임’의 3분류로 나누어 고찰해 왔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일본, 북한, 그리고 3대 핵 강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의 지도자는 물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공국의 ‘전쟁 전 책임’을 추궁 당할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가해의 역사를 가진 일본 국민이 목소리를 내어, 피해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북한을 헤아리고, 이 지역에 본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미국, 러시아, 중국의 찬동을 얻어 세계의 기대를 짊어진 평화 사업을 일으킴으로써 ‘대립의 문화에서 공생의 문화’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서 세계 항구 평화로의 흐름이 시작될 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런 기회를 주신 할버트박사기념사업회의 김동진 회장님과 월간 <영웅>지의 박창재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ハルバート博士追悼式典・満席の会場

人類史における究極の「戦前責任」を問われる

ホーマー・ハルバート博士68周年追悼式にあたり、ご挨拶の機会をいただき、感謝申し上げます。

私は2014年3月、安重根義士殉国104周年の記念式典で、孫黄恩珠氏、曾孫安寶榮氏の前で「安重根義士は、民族の英雄に止まらず、人類の英雄にすべきである」と申し上げ、参列者の熱烈な賛同を得ました。その安義士に「韓国人であれば一日も忘れてはなら

ない人物」と言わしめたのが、米国人ハルバート博士だとお聞きしています。

博士が大韓民国（韓国）で活動された19世紀末から20世紀初頭は、人類史的な激動の時代で、1914年に人類初の総力戦第一次世界大戦がヨーロッパで勃発しました。日本は国策を誤り薩長土肥と公家が合体し、権威と権力を統合。1872年〜1879年の琉球処分を経て中央集権国家を誕生させ、覇道の道を進むようになりました。その後日清戦争を経て台湾を併合、中国に侵攻しました。日露戦争後の1905年乙巳（ウルサ）条約（第二次日韓協約）によって韓国の外交権を奪い、1910年に韓国を併合しました。世界列強に向けて、韓国の自主独立を主張するため、博士は1907年、第2回ハーグ平和会議に特使を送ることを発案されました。

その特使のひとり李儁烈士が客死されたオランダ・ハーグのホテルが、記念館になっています。2

012年、李儁記念館を訪問し、私と特別の縁のある安義士の遺墨「獨立」のレプリカを展示しました。

この第2回ハーグ平和会議の出席者の中に、オーストリアのベルタ・フォン・ズットナーがいました。ズットナーは1889年、ベストセラー小説『武器を捨てよ!』、1912年、論文『空の野蛮化』を発表、戦争阻止を世界に訴え、国際的な平和活動を展開、1905年に女性初のノーベル平和賞を受賞しました。

2013年、米国のアンドリュース・カーネギーの寄付でハーグ市に建設された「平和宮（現国際司法裁判所）」100周年記念事業のひとつとして、「世界の平和フィランソロピスト20人」展が行われ、私もそのひとり選ばれ、パネル展示されました。その開会式に合わせて、ズットナー胸像の除幕式が行われ、胸像制作者であるオランダの彫刻家イングリッド・ロレマ氏と出会い、その人柄と深遠な念いの伝わる像に魅了され、カーネギー財団の賛同を得て、2体のズットナー像を制作していただきました。ズットナー像が「特別の平和使節」として世界を回り、その志が現代によみがえり、確かな平和への流れが始まることを願

っています。

韓国独立運動にまい進されたハルバート博士は「韓国人より韓国を愛した、韓国の永遠の友」とも言われており、韓国の文化を世界に広める役割も果たされました。同時代の19世紀末、ギリシャ生まれのアイランド人作家ラファディオ・ハーン（小泉八雲）が日本島根県松江市で教鞭をとり、欧米に初めて本格的に日本文化を紹介しました。今、ハーンの異文化に心を開く「オープンマインド」を評価する機運が高まっています。ハーンは、日清戦争後の日本の風潮に、こう警告を発しました。「おそらく、日本の将来の危機は、実



小松昭夫理事長の追悼文を代読するコマツアコリアの尹熙竣理事



2014年11月「八雲立つ日本・出雲から陽が昇る」シンポジウムにて、ズットナー像の除幕。
像左イングリッド・ロレマ氏、像右小松昭夫理事長。

にこの途方もない、大きな自負心にあるといえるだろう」(「心」1896年)。このハーソンの指摘どおり日本は道を誤り、貴国に大きな災難を与えました。「戦後責任」を果たす立場の日本人の一人として、心より謝罪を申し上げます。

今、世界は第一次世界大戦前の状況と酷似しているとの指摘があ

ります。

人間自然科学研究所は、1997年から世界の戦争・平和記念館を訪問、学習・献花・寄付を行うなどの活動が続け、紛争・戦争に至る背景と経緯と実態を研究、「戦前責任」「戦中責任」「戦後責任」の3つに分けて考察してきました。

今のままでは、日本、韓国、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共和国)、そしてアメリカ合衆国(米国)・ロシア連邦(露国)・中華人民共和国(中国)の3大核

大国の指導者は勿論、国民一人ひとりが、人類史における究極の「戦前責任」を問われる立場になります。

加害の歴史を持つ日本国民が声をかけ、被害の歴史を持つ共和国、韓国に語り、この地域に本質的な影響力を持っている米国・露国・中国の

賛同を得て世界の期待を担う平和事業を興すことにより、「対立の文化から共生の文化」への転換を促し、朝鮮半島と日本列島から世界恒久平和への流れを起こすことが熱望されています。

最後に、本日、このような機会をいただきましたハルバート博士記念事業会の金東珍会長様、金会長をご紹介いただいた『英雄』誌の朴昌宰社長様に厚く御礼を申し上げます。

〈2017年8月11日、「ホームー・ハルバート博士68周忌追悼式」が、韓国ソウル麻浦区合井洞所在の楊花津外国人宣教師廟院にて開催された。主催の社団法人ハルバ

ート博士記念事業会より小松昭夫理事長に招待状が届いたが、入院のため出席できず、コマツコリアの尹熙竣理事が名代として出席、この追悼文(二部加筆)を代読。尹氏は「式典で挨拶された6名の中、一番長い文書でしたが、皆さんが真剣に耳を傾けてくださり、読み終えた後には、多くの拍手を頂きました。席に戻ると『素晴らしい文書でした』、『まさに戦前責任が問われるタイミングです』と声を掛けてくださいました。中でも、

「文化遺産国民信託」の金宗圭理事長が強い関心を示され、小松理事長と面会する流れができました」と報告している。〉

第二次世界大戦における死者数

国別	軍人	市民	計(単位万人)
日本	230	80	310
ドイツ	325	335	660
オーストリア	26	12	38
イタリア	39	21	60
その他	163		
枢軸国			
合計			1231
ソ連	1360	700	2060
中国	350	971	1321
ポーランド	24	560	584
ユーゴスラビア	45	58	103
フランス	15	25	40
イギリス	38	7	45
アメリカ	41		41
その他	78		
連合国			
合計			4272

〈『一九九五年八月十五日に』(朝日新聞社)などより〉

■アジア・太平洋各国の死者数(上記の国を除く・単位万人)

朝鮮：20、台湾：3、フィリピン：111、ベトナム：200、ビルマ：5、マレーシア・シンガポール：10、インドネシア：400、インド：150、オーストラリア：2.3、ニュージーランド：1.2

〈『日本の侵略と膨張』(吉岡吉典・新日本出版社)などより〉